

문화산책

잔인한 4월이 건네는 역설적인 위로

윤익

광주시립미술관장



20세기 서구 문학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미국 출생의 영국 시인이자 극작가, 그리고 문학 비평가인 T.S. 엘리엇(Thomas Stearns Eliot, 1888~1965)은 모더니즘 문학의 선구자로 불리며, 현대인의 황량한 내면과 정신적 위기를 날카롭게 포착해 낸 인물이다.

엘리엇의 시 '황무지(The Waste Land)'에서 유래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문구는 이제 시적 표현을 넘어 봄을 맞이하는 우리의 복합적인 심정을 대변하는 하나의 관용구가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매년 4월이 찾아오면 거리에는 어김없이 그의 문장이 나타난다. 만물이 소생하고 꽃향기가 진동하는 이 화창한 계절에, 왜 시인은 '잔인함'이라는 서늘한 수식어를 붙였는지 여려모도 궁금해진다.

엘리엇이 말한 잔인함은 단순히 슬픔이나 고통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생명력의 강요'에 가깝다. 겨울의 황무지에서 죽은 듯 고요하게 잠들어 있던 뿌리들에게, 4월의 봄비는 다시 일어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이는 잠든 땅을 깨우는 비처럼 깨어남의 고통을 상징한다.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 없는 안락한 동면의 상태로 인식되는 땅과의 겨울은 다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며,

살아내야 하는 의무의 시작인 오랜 기억속의 봄을 소환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닮아있다. 때로는 변화의 물결이 몰려올 때, 우리는 성장의 기회보다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피로감을 먼저 느낀다. 억지로 밀어 올려지는 새싹의 고통이 바로 4월의 본질이다.

문화적으로 4월은 '대조의 미학'이 극대화되는 시기이다. SNS는 벚꽃 아래 웃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으로 도배되지만, 그 화려한 배경은 역설적으로 누군가의 고통을 더욱 짙게 만든다. 이는 잔란한 배경과 더불어 모순적이기도 그 이면에 난무하는 소외된 개인들을 불러낸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한다. "세상은 저토록 눈부시게 피어나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겨울인가?"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4월은 더욱 잔인하게 다가온다. 모두가 축제에 초대받은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홀로 일상을 견뎌야 하는 이들에게, 봄바람은 부드러운 초초가 아니라 날카로운 채찍질이 되기도 한다.

이 역설적인 계절을 현명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감각을 깨우는 문화적 향유와 신체의 생동감을 회복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4월의 잔인함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고립감으로 다가올 때,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그것은 정적인 전시 관람이다. 화려한 인파를 벗어나 미술관의 고요한 공간 속에서 캔버스에 쌓인 시간의 층을 마주하는 일은, 정신적 동면에서 깨어나는 부드러운 통로가 된다. 여기에 타인의 사유가 담긴 독서나 선율의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는 음악회 방문을 더한다면, 4월의 불안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보편적인 생의 진통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문화는 이 시기 우리가 겪는 심리적 가

뭉을 해소해 주는 가장 따뜻한 비가 된다.

동시에 마음을 지탱할 신체의 지지대를 세우는 일도 필수적이다. 뿌리를 뺀 새싹에게도 단단한 토양이 필요하듯, 우리 역시 일상생활의 운동 루틴을 통해 생명력을 증명해야 한다. 매일 아침 햇살 아래 20분간 걷는 그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우리 몸의 감각을 깨운다. 일과 후에는 경직된 몸을 펴는 스트레칭과 중심을 잡는 코어 운동을 루틴화해 보자. 내 몸의 중심이 바로 설 때, 외부의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계절을 맞이할 수 있다. 깊은 호흡으로 폐부 깊숙이 봄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그 찰나의 순간이야말로 잔인한 4월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4월이 잔인한 이유는 그것이 죽음과 같은 정지 상태에서 치열한 삶으로 넘어가는 문턱이기 때문이다. 겹절을 깨고 나오는 세상에 세상은 잔인할 만큼 낯설겠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을 날 수 없다. 지금 느끼는 불안과 피로감은 결코 당신이 멈춰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은 지금 역척스럽게 봄비에 젖어 뿌리를 뺀고 있으며, 꽃을 피우기 위한 가장 고귀한 전투를 치르는 중이다.

흐드러지게 핀 꽃들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진다면 스스로에게 나직이 읊조려 주자. "나는 지금 아주 치열하게 피어나는 중이다"라고 말이다. 문화로 마음을 적시고 운동으로 몸을 세우며 이 계절을 견뎌낸 모든 이들에게, 5월의 찬란한 결실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당신이 뻗어 내린 그 깊은 뿌리는 조만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꽃대를 밀어 올릴 것이다.

기고

이 도시에서 독립영화가 살아가는 법

강나해

광주독립영화관 프로그래머



독립영화의 '독립'은 어떤 뜻일까.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일까. 독립영화라는 말을 했을 때 다수의 사람이 '대한 독립만세'의 독립을 떠올린다. 물론 그 뜻과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지만, 정확히는 상업영화의 문법을 따르지 않는 영화를 뜻한다.

영화의 제작, 배급 독점 등의 관행을 벗어나 감독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영화인 것이다. 독립영화의 가장 큰 매력을 꼽자면 우리의 삶과 좀 더 밀착해 있다는 점이다. '이게 과연 이야기거리가 될까?' 싶은 사소한 소재도 독립영화의 스크린으로 들어가면 60분이 넘는 러닝타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제가 된다. 그러나 독립영화를 일상에서 만나는 건 쉽지 않다. 대부분의 극장은 멀티플렉스이고, 멀티플렉스는 독립영화를 상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는 독립영화를 중점적으로 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이 있다. 이들은 멀티플렉스에서 만나기 어려운 독립·예술영화를 소개함으로써 지역 시민들의 문화적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영상박물관 6층에 자리한 GIFT(광주독립영화관)는 광주·전남 유일의 독립영화전용관이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사소하면서 솔직하고, 관객들의 삶과 맞

닿아있는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다.

GIFT가 만들어가는 자리는 단순한 상영 그 이상이다. 상영을 넘어 지역 영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 움직임은 상영에서 교육으로, 그리고 비평까지 이어져 지역 영화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

GIFT는 한국 독립·예술영화를 꾸준히 개봉하는 한편, 여러 주제의 기획전을 통해 독립영화의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술, 음악 등 인접 분야와 협업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복합적인 문화적 경험을 선사한다. 광주 최초이자 유일한 영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전문적인 영화학과가 부재한 광주에서 영화 제작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이 프로그램은, 단편제작워크숍부터 문화 기획자 양성 과정, 영화 문화 강좌까지 이론과 실제 제작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영화학교 수료자들은 지역에서 꾸준히 영화 제작 활동을 이어가며 국내 영화계에 초점을 받는 등, 영화학교가 지역 영화인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GIFT는 지역 유일의 영화 비평지인 '씬 1980'을 발간하고 있다. 창간준비호를 포함해 총 21종, 20호가 출간된 이 잡지는 상영과 교육, 비평이 한 공간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의 한 축을 담당한다.

이러한 활동들이 안으로 지역 영화 생태계를 다져가는 일이라면, GIFT의 운영 주체인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는 그 시선을 바깥으로도 향하고 있다.

연대는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믿음 아래 활동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과 협력해 베니스 국제 영화제의 화제작을 소개하는 '베니스인 광주'를 2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5월에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함께 '프랑스 영화 주간'을 개최,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프랑스 영화를 상영하고 강연을 진행한다.

2025년에는 파리 귀스타프 에펠 대학, 5·18민주화운동 기록관과 함께 파리에서 광주 제작 5·18 영화를 상영해, 처음으로 파리 관객들에게 광주의 영화를 소개했다. 광주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파리의 스크린에 걸렸다는 것은 단순한 해외 상영 이상의 의미가 있다. 광주는 도시가 품어온 역사와 감각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다른 도시의 관객에게 닿았다는 건, 지역의 이야기가 세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GIFT는 독립영화를 매개로 지역이라는 경계를 넘어 세계와 함께하고 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광주의 영화를 알리고 광주의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의 토대는 결국 광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독립영화를, 그리고 GIFT를 응원하는 일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대단한 결심도 필요 없다. 잠시 시간을 내어 GIFT에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관객석에 깊숙이 몸을 담그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광주의 영화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에 선 것이다.

취재수첩

영아 학대 사망...이제는 끊어내야

임영진

사회부 차장



생후 4개월된 영아를 숨지게 한 '해든이 사건' 재판부가 23일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에게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결심 공판 전부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과 진정이 잇따랐던 이번 사건을 향한 사회적 분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처벌 수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반복되고 있는 영아 학대 사망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구

조적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 중 2세 이하 영유아 비중은 46.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아이들일수록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정부는 병원 진료·검진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 이용 이력이 없는 아동은 중심으로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겠다는 취지다. 방문조사 강화와 보호 체계 확충, 처벌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안에서 발생하고, 외부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여러 기관이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도 적절히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반

복돼 왔다. 제도가 있음에도 현장에서 놓치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돌아간다.

2020년 양부모가 생후 6개월된 아기를 학대, 살해한 '정인이 사건' 이후 제도 개선이 이어졌지만, 영아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다.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고, 이를 실질적인 보호 조치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 비로소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처벌 강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해든이 사건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소비되고 끝나서는 안 된다.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위험에 놓인 아이들을 실제로 찾아내고 보호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으로 이어져야 한다.

더 이상 영아 학대 사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사회가 반드시 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사설

광주~전남 하루 28만 왕래...광역교통망 절실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을 앞둔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사실 그 이전부터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광주연구원이 최근 광주와 전남 인접 시·군 등을 하루 평균 28만명이 오고 갔다는 내용을 담은 '광주·전남간 생활권' 인포그래픽을 발간했다.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2020년~2025년)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 간 하루 평균 방문자는 28만838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 전남을 찾은 방문객은 일평균 18만2000명, 전남에서 광주를 찾은 방문객은 9만8000명이다. 이는 2022년 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양 지역을 오고 간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24만3358명에서 2021년에 25만명대로 늘었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은 27만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28만명대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광주와 인접한 나주, 담양, 곡성, 화순, 함평, 영광, 장성 등 7개 시·군의 왕래가 가장 활발했다.

광주에서 이들 시·군으로 이동한 인원은 일평균 10만7000명으로 전체의 60.4%를 차지했고 이곳에서 광주로 유입된 인원은 4만9000명으로 55.6%에 달했다.

특히 광주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나주·화순·담양·장성 등 4개 지역은 하루 전체 방문자의 절반 이상이 광주 거주자였다. 광주 역시 하루 방문객의 절반 가까이가 전남 거주자였다.

반면 광주와 거리가 멀거나 교통편이 불편한 보성·장흥·강진·원도 등 전남 중남부권과의 교류는 하루 평균 1만1000여명으로 상대적으로 교류가 뜸했다.

이번 분석은 출퇴근과 여가, 생활서비스 이용이 광주·전남이라는 행정구역을 넘어 이미 하나로 묶여 있음을 나타내는 실증적 증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교통 불편과 기반시설 미흡 등이 지역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이들 지역을 잇는 광역버스 확충과 대중교통 통합환승 체계 구축, 주요 생활 인프라 공동 활용 등 이동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계출산율 역대 최고 증가율 기록했지만...

저출생 흐름이 반등되고 있다는 반가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이 1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아 수가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증가율 또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6년 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747명(13.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19년 2월 2만5710명이후 가장 높고 증가율(13.6%)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증가폭(2747명)도 역대 세 번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생 증가 흐름이 2024년 7월 이후 20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 1~2월 누계 출생아 수도 4만981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6% 늘었다.

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2월 0.93명으로 전년 같은기간(0.83명)보다 0.10명 상승했다. 월별 합계출산율 집계기 시작된 이후 14개월 연속 상승이다.

이 기간 광주·전남 출생아 수도 늘었다. 광주는 587명이 출생해 전년 같은 기간 494명보다 93명 증가했고 전남도 역시 769명으로 전년 673명 대비 96명 늘었다.

광주·전남 합해서 1356명이 출생, 지난 2021년 2월 1360명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차 애코붐(1964~1974년생)의 자녀로 인구 규모가 크고 결혼·출산 연령대에 진입한 2차 애코붐세대(1991~1995년생) 등 30대가 이러한 흐름을 견인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이들의 출산·혼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부와 자치단체의 출산 장려 정책도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지난해 0.8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올해 0.9명을 넘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OECD 평균인 1.4명에 비해 턱없이 낮다. 실제 광주·전남의 경우도 2월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었지만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가 광주 140명, 전남 819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 공을 더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www.GwangNam.co.kr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Gwangnam Ilbo,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and a list of staff members.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